

벤투 “철학 · 방향성 잃지 않을 것”

“우리 스타일 버리지 않는다, 김신욱 장점 고려해 활용”

“투르크메니스탄, 감독 교체 후 경기 없어 예측 불가능”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둔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우리의 스타일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철학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경기를 펼치겠다.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팀을 운영하겠다”

고 밝혔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5일(이하 한국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조지아와 평가전을 치르고 이후 10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1차전을 치른다. 벤투 감독은 2일 터키로 떠나기

앞서 “이전과는 다른 단계에 돌입했다. 2022년 월드컵을 앞두고 첫 시작을 하는 과정”이라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스탄불에 가서 선수들의 몸 상태와 컨디션을 확인해 두 경기를 잘 치르겠다. 유지했던 철학과 방향성은 잃지 않고 경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거리 원정 부담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달라질 건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해 최적의 동선을 짰다. 이번에는 아시아에서 뛰는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적응해야 한다”며 “반대로 그간 국내에서 경기를 치를 때면 유럽 선수들이 피로를 호소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최선의 계획을 짜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팀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였다. 2차 예선 1차전 상대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아시안컵이 끝나고 감독을 교체한 뒤 공식 경기를 한 적이 없는 것이 눈에 띈다”며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경기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가겠다. 남은 기간 상대 분석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임 후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게 된 김신욱에 대해서는 “김신욱을 소집할 수 있는 적기라 판단했다. 소집 기간이 짧지만, 우리 스타일에 김신욱이 잘 적응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김신욱의 장점을 잘 고려해 활용하겠다.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이야기를 통해 호흡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벤투 감독은 최근 좋은 활약을 보이는 유럽파 선수들에 대해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뛰느냐 보다 어떤 활약을 보이는지”라며 “지속해서 유럽파 선수들을 점검하고 분석하겠다. 유럽의 경우 시즌을 시작하지 않아 되지 않겠다는 점을 고려해 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김신욱 “편한 마음은 아니지만 팀 승리에 도움되고 싶다”

“전술 따라 장단점 분명...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첫 부름을 받은 김신욱(31·상하이선화)이 “여러 가지로 편한 마음은 아니다. 팀을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5일(이하 한국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조지아와 평가전을 치르고 이후 10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1차전을 치른다. 김신욱은 이번 소집 명단에 벤투 감독 부임 후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신욱은 2일 터키로 떠나기 앞서 “2차 예선을 앞두고 대표팀에 오게 돼 설렌다. 편한 마음은 아니다. 팀을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될지 고민 중인 듯”이라고 입을 폈다.

이어 “벤투 감독님과 미팅을 통해서 제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민할 생각”이라며 “저는 전술에 따라 장단점이 분명한 선수다. 하지만 전술에 따라 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에 제가 팀에 맞추려고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투톱이든 원톱이든 많이 해봤다.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대표팀의 축구 스타일에 맞춰 팀 승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속된 중국 리그에 대해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8강에 두 팀이나 진출해 있는 강한 리그다. 쉽지 않지만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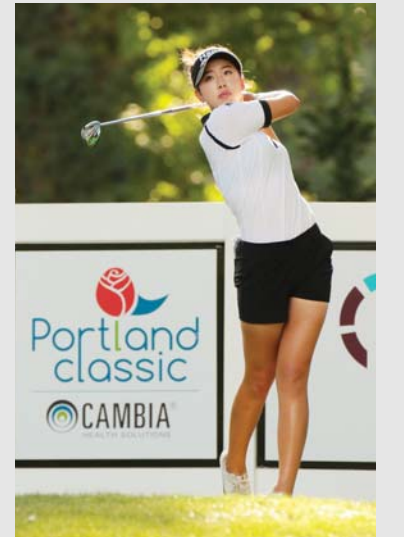
했다. K리그 팬들의 성원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김신욱은 “지난해 월드컵 이후 대표팀에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었는데 전북 현

대에서, 그리고 이적을 통해 팬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 감사하다. 눈앞에 있는 두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7개 대회 출전 만에 준우승 ‘18세’ 노예림, 가능성 빛났다

재미교포 노예림(18)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투어 7개 대회 출전 만에 개인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신고하며 가능성을 빛냈다. 노예림은 2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터 컨트리클럽(파72·6476야드)에서 열린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총상금 130만달러) 4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를 작성한 노예림은 우승자 한나 그린(호주·21언더파 267타)에 1타 밀린 준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1월 프로로 전향한 노예림은 LPGA투어 자격이 없지만 월요 예선을 통과해 이번 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다. 노예림이 만약 이번 대회에서 우승했다면 역대 세 번째 월요 예선을 거친 우승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린의 기세에 밀려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노예림은 4라운드 후반까지 리드를 지켰으나 17번 홀(파4)에서 그린에 동타를 허용했다. 승부가 달린 마지막 파4 18번 홀에서는 티샷을 오른쪽 벙커에 보내며 결국 보기를 적어냈고 파를 지킨 그린에 우승컵을 내줬다. 어렵게 눈앞에서 우승은 놓쳤지만 노예림은 개인 최고 성적



을 경신하며 가능성을 증명했다. 노예림이 앞서 치른 6개 LPGA투어 대회에서 올린 종전 최고 기록은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거둔 공동 6위다. 2011년 7월 26일생인 노예림은 지난해 여자 주니어 PGA 챔피언십, US 여자 주니어 챔피언십, 캐나다 여자 아마추어 챔피언십 등에서 아마추어 대회 우승을 싹쓸이하며 유망주로 떠올랐다. 올해 1월 프로로 전향한 뒤로는 LPGA투어 비회원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아직 시드가 없기 때문에 스폰서 초청이나 월요 예선 등을 통해 대회 출전을 하고 있는 그는 올해 안에 꼭 첫 승을 따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류현진, ‘휴식 없이’ 5일 콜로라도 홈경기 등판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류현진(32·LA다저스)이 휴식 없이 다름 등판을 이어간다. 2일(한국시간) MLB.com에 따르면 LA 다저스는 류현진이 오는 5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에 선발투수로 나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저스가 3일부터 5일까지 콜로라도와 홈 3연전을 펼치는데 류현진이 마지막 순서로 등판한다. 맞대결할 콜로라도 선발투수는 안토니오 센자텔라다. 그는 이번 시즌 8승9패 평균자책점 6.95를 기록 중이다.

최근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류현진이지만 일단은 휴식 없이 등판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류현진은 지난달 1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원정경기(5%이닝 4실점), 24일 뉴욕 양키스 홈경기(4%이닝 7실점), 30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홈경기(4%이닝 7실점)에서 3연속 패전을 떠안았다. 홈런과 집중타를 연신 허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구위와 체력 모두 면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강했던 홈 경기에서조차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